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순항

인력 배치 완료, 공공·민간 연계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기본계획, 매뉴얼 등 마련

주민주도형 돌봄 공동체 조성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이하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통합복지하나로'는 수혜 대상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범지역 3개 동(제주시 아라·노형, 서귀포시 동홍동)을 중심으로 인력배치가 완료되

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 체계가 구축되는 등 통합복지하나로 운영모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합복지하나로'는 시범지역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 사회복지사 인력이 각각 2명, 3명씩 배치되어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사례관리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제주사회복지연구원에서 '통합복지하나로' 운영



▲ 지난달 22일 제주사회복지연구원에서 열린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매뉴얼 및 지표관리 공유 워크숍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관리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어 26일에는 민관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워크숍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시범사업 추진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통합복지정보제공

사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시스템 구축과 전화상담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7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8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합동 정년퇴임식 개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지난달 22일 4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2일 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현장 정년퇴임자를 대상으로 '제주사회복지현장 2020년도 상반기 합동퇴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합동퇴임식은 제주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년퇴임자를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합동퇴임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퇴임자 4명과 동료, 가족 등 인원수를 제한한 가운데 간소화해 진행됐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고태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의정 활동 마무리
- 특집 4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14회 사랑 사진 공모전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출덕터

<나눔 참여 기관·기업 광고②>



제주의 자연은 제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 저희 한돈농가는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돈농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저희 한돈농가는 청정이미지 보전으로 늘 푸른 제주환경을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고태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의정 활동 마무리

“사회적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노력 큰 성과”

▲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소회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4년 동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의원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이번 11대에서는 평의원이 아닌 위원장으로서 전반기를 보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서 그 책임감이 컸던 거 같다. 그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과 故 윤춘광 의원님이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큰 도움을 받았던 전반기 활동이었다.

▲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상임위원들과 같이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였던 거 같다.

1조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과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

하고 개선한 결과가 지금의 제주 복지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고 세부적인 안전계획 및 매뉴얼 등 마련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

▲ 제주도 사회복지 현안 중 기억에 남는 해결 사례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제도 시범도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하고 포인트 지급액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힐링 및 교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복지이음마루’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현장에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여건과 위험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아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한

다. 또한 앞으로 수많은 감염증으로 지금과 같거나 새로운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관계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언택트, 랜선, ICT 등의 변화요구는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지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많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위기상황으로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력,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정책, 제도, 교육)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김성건 사무국장·정리=김승지 기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전시회 ‘희망나래전’ 희망나래, 20종 커뮤니티 아트상품 등 전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 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 희망나래 커뮤니티 아트센터 작품전시회 ‘희망나래전(展)’ 5차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탄생한 미술 작품과 이를 일상생활용품에 접목해 개발한 커



뮤니티 아트상품 20종으로 꾸며졌다.

전시회는 지난 5월 22일 북촌돌하르방미술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했으며, 2차 전시회는 6월 3일까지 심현갤러리에서 열렸다.

6월 8일, 15일은 희망나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희망나래전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 동안 진행됐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6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등뼈 246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 2,500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372봉
- ▲금산서당골=자투리고기 78kg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던킨도너츠 탑동점=빵 190봉 ▲밀문도 로스터스=빵 192봉 ▲동원F&B 제주지점=동원식품 7,775개 ▲팡스부대찌개=두부 8kg ▲뚜레쥬르 제주탑라점=빵 496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4,836개 ▲모양=빵 166봉 ▲미인빵=빵 235봉 ▲바바오럼=빵 27봉 ▲비엔누아즈=빵 187봉 ▲소민떡방=떡 275개 ▲알파통상=식료품 2,478개 ▲약속다방=쿠키 57개 ▲에스에이치유통=젤리 128개 ▲이든이네=건어물 10kg ▲이현옥=쌀 220kg ▲제주보리촌=보리빵 290개 ▲주인성=돼지등뼈 75kg ▲참새방앗간=떡 1,222개 ▲코시롱뚝비=두부 120개 ▲픽스커피공단점=빵 58봉 ▲해맑은 떡방=181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감사패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의회(회장 고민좌)는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과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은영 주무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특별

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당사자 간담회,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

준비를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어릴 적 어려울 때가 있었다. 정치를 하게 되면 꼭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너무 뜻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협의회 5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460,000	1,11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400,000	4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85,000	3,936,510
푸 드 마 켓 후 원	2,996,524	31,592,120

우도 주민 병원이용 효도차량 ‘탑써’ 운행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모전 최종 선정

우도지역 어르신들의 제주 시내 병·의원 이용에 이동 편의를 제공할 전용차량이 운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서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 의료 사회 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도 효도차 - 탑써’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한 곳만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발굴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우도 효도차 - 탑써’ 사업은 전용차량을 마련하여 제주 시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우도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사회복지협의

회와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우도면사무소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해 우도에서도 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 활동과정 중 파악된 문제를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다.”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공헌 모델로서 차 한 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나겠다.”고 말했다.

모범 청소년 장관표창 수상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표창결과 쉼터 청소년 김 모 군이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모 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촬영과 영상편집, 드론조종 기술을 배우고 취업에 성공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어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오 모 군이 제주도지사표창을, 오상근 보호상담원이 제주시장표창을 수상했다.

오 모 군은 학업과 병행하며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기술을 꾸준히 배우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며, 오상근 보호상담원은 쉼터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모습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청소년 보호 및 자립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조기기 다시쓰기 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기를 수거해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 다시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사진>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로 우편 또는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품목은 전방기립훈련기(6대), 후방기립훈련기(3대), 자세보조용구(3대), 수동휠체어(6대), 후방지지워커(1대), 장애아동유모차



WRB(1대)로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u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SNS를

통해 노인학대예방의 날 퀴즈이벤트,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사진전 등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jejunoi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 고승화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인 : 김성건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선임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 이동한 이사장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최은미 원장



이동한



최은미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이 제3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사진 왼쪽>을 맡는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2020년 제2회 임시총회(서면결의) 결과 이동한 이사장이 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선임 회장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제주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제3대~제5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지난달 1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 3년이다.

이와 함께 문성은 도사회복지법인대표

자협회장(사회복지법인 농애원 대표이사)은 이사로 선임됐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제2대 회장에는 최은미 유진주간 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 원장이 취임했다.

최 선임 회장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NH한술 밀반찬 나눔기금 2000만원 전달

농협제주지역본부·제주시농협...조리·배달 봉사도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와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은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찾아 저소득층 지원 NH한술 밀반찬 나눔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나눔 기금은 제주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참여하는 기부금을 모아 전달됐다. 전달된 기금은 도내 저소득층 60가구에 전달 될 밀반찬 재료비와 밀반찬 용기, 식기 세척기 등 구입에 사용된다. 제주농협은 나눔 기금 전

달에 그치지 않고 6월부터 매주 화요일 범제주농협 봉사단이 조를 나눠 밀반찬 조리과 배달 봉사도 실시한다.

조리봉사는 제주시농협 수눌음 모임(회장 김인자), 여성책임자봉사회 한란회(회장 이현주, 정부청사출장소 지점장), 사무소장봉사회 채유미(회장 이창수, 남문지점장)가 참여한다.

배달봉사는 제주농협 직원봉사단(단장 백희병),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단장 김군찬)이 진행한다.

고봉주 조합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14회 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대상| 첫만남 _ 현효주



|동상| 내게 가장 아름다운 _ 윤인성



|금상| 할아버지와 활짝 _ 이지화



|은상| 걱정을 날려 버리자 _ 이나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제14회 사랑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함께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별전달로 진행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 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18명(595편)의 사진이 응모해 이중 17편의 사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7작품을 싣는다.<편집자 주>



|은상| 엄마의 심부름 _ 송경도



|동상|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_ 강소이



|동상| 첨벙첨벙 물장구 _ 강예원

소/식/마/당

(무순)

다문화 가정 자녀 첫돌 선물 전달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지난달 4일과 7일 '함께하는 행복나눔방'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중 첫돌을 맞이한 3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

2가정은 코로나19로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러지면서 물품으로 지원했으며, 1가정은 부모가 마련한 돌잔치 장소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위생을 준수해 이주여성들과 함께 축하했다.

지속적인 나눔 실천 눈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 지구 우도라이온스클럽(신임회장 정광석)은 지난달 7일 우도라이온스클럽 창립 제26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주몽생이그룹홀과 제주소나이그룹홀(대표 김완숙)에 각각 쌀 100kg을 전달했다.

우도라이온스클럽은 2019년에 제주소나이그룹홀에 쌀 200kg를 후원했으며 의류건조기 기증, 식사제공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밀반찬 만들기 봉사 실천



신성학원총동문회(회장 현희순)는 지난달 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나눔터봉사실에서 '나눔은 사랑과 감사의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신성학원총동문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양파장아찌와 족발을 만드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만들어진 양파장아찌와 족발은 은누리봉사회 밀반찬 대상 어르신들에게 배달됐다.

'에코 투게더' 프로그램 진행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및 친환경 실천을 위한 EM친환경프로그램 '에코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 EM활용물품을 만들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환경정화사업 실시



희엘(원장 배정미)은 최근 장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사업으로 '청정 제주 만들기'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이 환경정화와 분리수거에 참여해 자존감과 책임성을 갖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계해 환경을 지키고 청결한 습관을 갖게 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다. 사업은 연10회를 실시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일손돕기 사회공헌 활동 전개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최근 마늘 가격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덕면 사계리 고령 장애인 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 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매년 2회씩 도내 읍면 지역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산하기관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다양한 안전 정보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최근 서귀포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안전 관리 체계화를 위한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건축과 전기, 소방, 활동안전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안전 전문가들이 시설 안전현황을 살폈다. 특히 시설물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방법과 안전 정보를 안내했다.

장애인 정서적 안정 도모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술 활동 '함께하는 아웃사이드 아트' 사업을 36회기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미술매체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갈등을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잠재적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정신건강 도움



서귀포시여성장애자 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는 지난 5월 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오대영 원장이 정기후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여성장애자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지난해 쉼터와 연계협약을 실시해 입소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나눔공연단 공연 업무협약



제주시희망원(원장 이경근)과 성짓골합창단(단무장 고정언), 꿈섬어린이합창단(대표 지은순), 탐나라타악팀(회장 김순자)은 지난 5월 2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희망나눔공연단' 합동공연과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나눔공연단은 협약에 따라 올 한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 눈 건강 업무협약 체결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 5월 20일 센터에서 이용자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안경사회(회장 김대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심한지적·발달장애인의 시력관리 협력사업 ▲장애이해 도모를 위한 인식개선 출강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시력측정기(방법)연구에 대해 상호협력키로했다.

장애인 정서적 안정감 유지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시설장 배정미)와 한국예총시니어모델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순실)는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센터 앞마당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론

코로나19로 더욱 가려진 부분을 돌아보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코로나19가 벌써 5개월 이상 지속되며 이미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것이 더 특별한 생활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더욱 드러나기도 하고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감염증 바이러스이고 이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불평등, 격차, 혐오와 차별등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배우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이동이 제한돼 노인에게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 등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아동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UN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외출금지령을 내림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보도되었다. 사건을 보면 갑자기 발생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변 누구도 아동학대에 대하여 알아차리고 신고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과 등교가 미뤄지면서 아동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외부와의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의 접촉도 줄어들며 아동학대 신고도 작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화상수업을 하며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자 학대정황을 발견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외부와 단절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학대가 외부와의 관계망이 줄어들며 더욱더 안으로 숨고 있다. 사

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져 오며 관계에 대한 두려움, 피로감, 감염에 대한 위험 등으로 더욱더 관계가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떨어진 사회적 관계와 힘든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백신을 만들기 위하여 이웃을 이어주고 공생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백신을 개발하는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위험요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72

삭제된 홈페이지의 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현대 사회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손쉽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표현의 자유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고자 한다.

2011년 6월 경 여러 사람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이

었고 하루에 10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같은 날 해군본부는 이러한 항의글을 일괄 삭제하였다. 글을 올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항의글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공무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었던 것인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한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우리 대법원은 자유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은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임의적인 삭제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절·타당한지 여부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칼럼

코로나19 이후
제주사회복지 미래

지금껏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19로 일상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생활방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힘들고 지친 순간을 기억하며 '더 나은 처음'이 될 수 있는 미래 제주의 사회복지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보건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매우 크며, 지금도 향후에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등을 대비하는 방역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강화되는 보건정책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필요하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쇼핑과 게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비대면 서비스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생각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반강제적으로 소비자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편리성과 유용성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 고민 필요

을 인식해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 성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고민과 노인 및 장애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을 상징하던 집단주의 문화도 쇠퇴하고, 개인주의 문화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복지서비스 유형에 제공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대규모 집단제공보다는 소규모 그리고 개별 제공으로 변화 대비와 집단 돌봄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돌봄 형태에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가정 중심의 개별 돌봄 강화 방안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처럼 누군가는 뒤늦게 대응한다고 말하겠지만, 어쩌면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와 발전하는 기술력,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받는 도덕성·투명성·건전성·공공성 등의 요소가 뒤엎기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기 어려움으로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역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함이 필요하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온라인 강좌 진행

매주 금요일 4회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했던 고령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온라인 강좌로 진행했다.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복지관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5월부터 대부분의 사업들이 운영됐지만, 참가대상이 60세 이상인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부담이 따랐다. 이에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

를 시범적으로 운영기로 했다. 온라인 강좌는 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매주 금요일 4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향후 강사와 참가자들의 평가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가 강좌를 계획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긴급구호 키트 배포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은 JYP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함께한 코로나19 긴급구호키트 20세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구호키트는 식료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5만원 상

당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천, 구좌읍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가정에 전달됐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전재순)는 최근 센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꽃을 심는 나는 창작예술가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제주도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발달장애인이 체험 중심 예술 활동 기회와 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능 개발 기회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성취감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예와 도자기 교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진료와 확산방지에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센터 직원 및 이용인과 함께 참여한 송문환 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종식

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볼링대회 도대표 선수 선발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회장 임상우)는 13~14일 이틀간에 걸쳐 탑 볼링장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할 제주도대표 선수 선발전을 개최했다. <사진>



선발전은 선수들은 동계훈련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숨은 잠재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임상우 회장은 "앞으로 많은 볼링 선수들을 육성·발굴해 전국체전에

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장애인볼링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장장애인 복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 5월 22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봉사동아리 제주한라유니콘(회장 박정현)과 도내 신장장애인의 복지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과 지속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이를 위해 협약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제주한라유니콘 임원진에게 15가지 장애유형중 하나인 신장장애를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므로서 신장장애를 바로 알아 대외활동 이전에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11·끝) 그루터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기여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그루터기'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직업재활시설이다. 정신장애인은 작업 속도가 느리고 세련됨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점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직하게 생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루터기는 주문 생산제, 위생적 생산 시설,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그루터기

그루터기(원장 박순옥)는 정신장애인에게 식품제조가공의 직업재활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정신장애인

▲떡

100% 국내산 햅쌀로 만들어진 떡은 맛과 영양 부분에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성이 가득 들어간 가래떡류(떡국, 절편 등), 증편, 설기떡류(백설기, 단



▲ 왼쪽부터 떡, 참기름



호박설기), 꿀떡, 제주송편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참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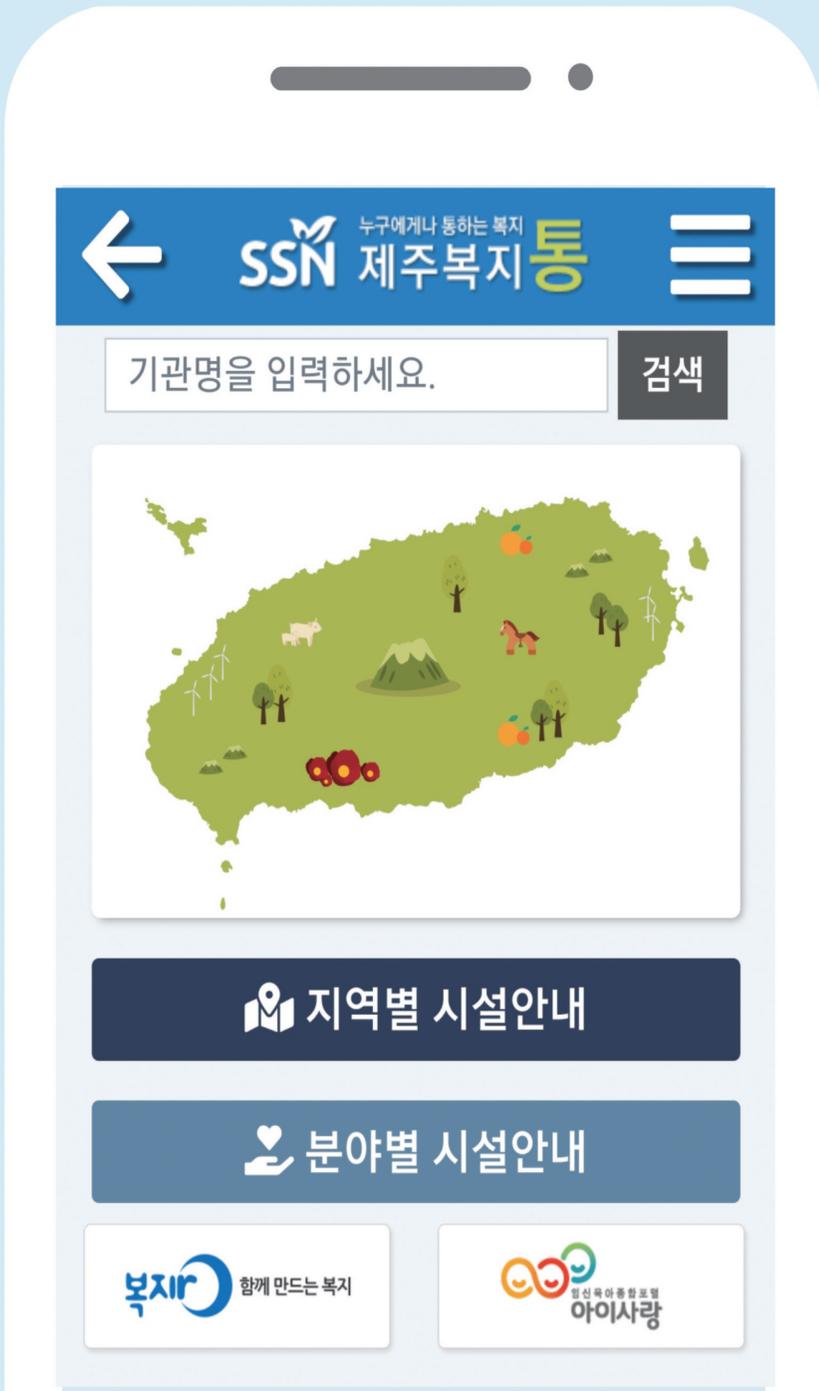
참기름은 100% 통참깨를 여러 번의 세척작업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꼼꼼히 말린 후 적당한 온도에서 타지 않게 볶아 1번만 압착해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주문 즉시 제주산과 중국산 재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등 신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엄격하게 선별하고 깨끗이 세척한 통참깨를 고소하게 볶은 볶음참깨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떡과 참기름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4-759-2256).

사회복지시설정보안내 모바일앱 '제주복지통'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털 모바일 앱'



'제주복지통'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복지통
한눈에 보기

- 1,084개 분야별·지역별 사회복지시설정보
- 일자리·육아·중독·주거·사회보험 콜센터
- 노인·아동·장애인·가정·학교폭력 긴급전화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 온라인 식품기부 푸드뱅크
-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